주임신부 :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 권병학 요한 사도
TEL : 905-545-3004

사순시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미사 시간	
주일미사	주일 11:00 (본당)
	주일 17:30 (공소)
평일미사	매주 (화) 20:00
	매주 (수) 11:00
	매월 첫 (목) 19:00
성모신심미사 십자가의 길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목) 미사 중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년마다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 / 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주일학교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주일 미사 후
샛별 Pr.	매주 일요일 9:30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수요일 9:3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30
사도들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바뇌 기도회	매월 1,3주(토)10:00
울뜨레야	매월 1주(목) 성시간 후

2026년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3/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3/31(화) 성주간 화요일 미사 (본당 20:00)
▶4/ 1(수) 성주간 수요일 미사 (11:00)
▶4/ 2(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19:30)
▶4/ 3(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19:00 십자가의 길 이후)
▶4/ 4(토)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본당 21:00)
▶4/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 (16:00)

◎ 성유 축성 미사

일시: 3/30(월) 14:00
장소: 해밀턴 주교좌 성당 (714 King St, W Hamilton)

◎ 성령 안수 예식 3/31(화) 20:00 미사 중 성령 안수 예식

◎ 세족례

4/2(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 중 세족례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후 7시 15분까지 성전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목요일(4/2) 구역별 성체조배 시간표

시간	구역	시간	구역
9:00-10:00	공소	2:00-3:00	7구역
10:00-11:00	2구역	3:00-4:00	6구역
11:00-12:00	3구역	4:00-5:00	5구역
12:00-1:00	1구역	5:00-6:00	신부님, 전례부
1:00-2:00	4구역		

* 묵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금요일 19:00)

4/ 3 구역장 해설: 신부님, 십자가 복사: 신철호 시몬
초복사: 이상은 엘리사벳, 소성희 소피아

◎ 성삼일 미사 및 부활 대축일 미사 전례

주님만찬 성목요일 (4/2 목) 해설: 박규혜 카타리나
1독서: 이은영 힐데가르트, 2독서: 강지원 요안나
봉 헌: 이지훈 다니엘, 임연신 비아
복 사: 유세진 라파엘, 유서진 다니엘

주님 수난 예식 (4/3 금) 해설: 권희진 요안나
1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독서: 박혜영 수산나
복 사: 최다인 안나, 이지민 이사벨라

파스카 성야 미사 (4/4 토) 해설: 이은영 힐데가르트
1독서: 이인선 젬마, 3독서: 권희진 요안나
7독서: 하유선 라파엘라, 서간: 채정희 올리비아
봉 헌: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정복사: 이준환 파비아노, 이준서 요한
향복사: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우 바오로
초복사: 이준우 제노, 고동연 미카엘

◎ 특별헌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4/3)에
성지보호를 위한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 복음필사

사순시기 동안 필사 한 복음은 각 구역장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파스카 성야(4/4) 미사 때 봉헌됩니다.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 성인 이야기는 <성 안드레아>입니다.

◎ 구역장 월례회의

오늘 미사 후 대철실에서 구역장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단체 소식

◎ 부활대축일 행사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요한 요한, 권희진 요안나, 김정해 요안나
메아꿀빠(재모임팀), 문순옥 크리스티나, 민연환 데레사
신상해 프란치스코, 신용숙 수산나, 조정순 미카엘라
하대교 로사, 황창환 알비노, 본당 신부님
최태하 리헐터(외부)
도네이션은 오늘(3/29)까지 받습니다.

공소 소식

◎ 4월 축일자

4/12 안드레아 (손대민)
4/19 레오 (최윤성)
4/29 카타리나 (조예정)

사순절의 기도

이해인 수녀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항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친교식사

오늘은 가정주일로 친교식사가 없습니다.
4/5: 부활대축일 4/12: 6구역 4/19: 7구역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73명)			
주일헌금	$1,550	교무금	$170
특별헌금	$745	성전건립	$100

감사합니다

성모회 도네이션: $200 익명
성가대 도네이션: 이인선 젬마

◎ 4월 축일자 (14명)

4/ 4 힐데베르트 (유근상) 4/ 5 이레네 (민정숙)
4/11 젬마 (이인선, 신신배) 4/21 다니엘 (최환)
4/22 베드로 (최무원) 4/22 레오 (최현성)
4/24 마리아 (강정숙) 4/24 보나 (최다희)
4/26 벨라뎃다 (신우애)
4/29 카타리나 (박규혜, 심현숙)
4/30 소피아 (김선화, 김유진)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3/29	박규혜 카타리나	십자가: 이준환 파비아노, 향/향합: 최다혜 플로라, 이소민 그레이스 정복사: 최다희 보나, 김규리 라파엘라	1독서: 이지훈 다니엘 2독서: 임연신 비아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4/ 5	임연신 비아	정복사: 최다인 안나, 김규리 라파엘라 향/향합: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초복사: 이지민 이사벨라, 이소민 그레이스	1독서: 김성수 베드로 2독서: 이재순 데레사	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
4/12	김성수 베드로	최다희 보나, 김시하 스텔라	1독서: 이인선 젬마 2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권희진 요안나 이재순 데레사

“ 다시 보게, 눈을 뜨게 ”

윤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겸 신학원장

사순절의 막바지에 배치된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부터 주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거행하는 한주간은 교회 전례의 중심을 이루는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여 ‘성주간’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복음은 “온 도성이 술렁”(마태21, 10)거린다고 전하며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마태21,8)고 전합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장면이지만, 교회는 이 입성을 예수님의 수난의 시작으로 보고 미사 중에는 긴 수난기를 봉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의 환영과 메시아의 수난을 동시에 전하는 이 주일을 ‘주민 수난 성지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관복음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예리코의 눈먼 사람’(마태20,29-34; 마르10,46-52; 루카18,35-43)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이 눈먼 사람의 입을 통하여 성주간에 일어날 일을 “다시 볼 수 있게”(마르10,51;루카10,41) 혹은 “눈을 뜨게”(마태20,33)해 달라고 주님께 청합니다.

성주간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주님이 죽어서 슬펐다가, 다시 부활해서 기쁜 ‘조울증’의 증상으로 드러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하느님의 ‘최후의 계시’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존이 중심이 되어 전쟁마저 불사하는 오늘, 사랑 때문에 죄인들의 발을 씻기며 자신의 몸을 내어 주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고통받는 사랑’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성주간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특별한 은총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 은총은 성주간의 전례를 거행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이의 발을 씻으며, 그분과 함께 자신을 내어주는 삶, 곧 자발적인 ‘고통받는 사랑’으로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6,4)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수난과 영광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갑시다. 이곳에서 그분이 겪은 마지막 유혹과 갈등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간직하는 거룩한 성주간이 되길 바래 봅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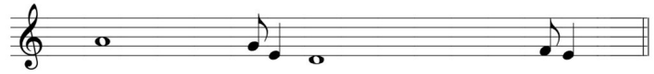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6. 3. 29.)

제1독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4-7

화답송 시편 22(21),8-9.17-18ㄱ.19-20.23-24(◎ 2ㄱ)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6-11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6,14-27.66

입당 10	봉헌 220	성체 170	파견 119